

<참관기>

독일 법사학자 대회(Deutscher Rechtshistorikertag) 참관기

— H. Coing 교수, H. Thieme 교수를 회상하며 —

최종고*

I .

2008년 9월 7일~11일 독일의 역사적 도시 파싸우(Passau)에서 제37회 독일법사학자대회(Deutscher Rechtshistorikertag)가 개최되었다. 내가 이 대회에 기조강연(Hauptvortrag)을 의뢰받은 것은 근 2년 전부터였다. 마침 대회가 열릴 무렵에는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한 학기 강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히 수락하였다. 그리고 대회를 주관하는 파싸우대학의 울리히 만테(Ulrich Manthe) 교수도 내가 1975년~79년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법사학연구소에서 교수자격논문(Habilitation)을 준비하고 있던 옛 친구였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였다. 그래서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독일 법사학회 모임은 어떤가 호기심이 있기도 하여 정말 크게 기대가 되었다. 한국법사학회가 국내적으로는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큰 유대를 갖고 있지 못하여 늘 아쉬워해 오던 터였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전 본학회장

37. DEUTSCHER
RECHTSHISTORIKERTAG
7. BIS 11. SEPTEMBER 2008
IN PASSAU



37. DEUTSCHER RECHTSHISTORIKERTAG IN PASSAU 2008

- ☐ <참가자들에게 선사한 파싸우시 옛 풍경화>
- ☐ <독일 법사학자 대회 공식 프로그램 팸플릿 표지>

그러나 무엇보다 동아시아 법사학자로서는 처음으로 한 분과발표도 아닌 주제 강연을 독일어로 해야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마침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국제적 비교에서 본 법철학>(Rechtsphilosophie im Internationalen Vergleich)을 독일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어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갔다. 그리고 내가 강연할 주제, <동아시아법사에 서의 보통법의 건설과 몰락>(Aufbau und Verfall des *Ius Commune* in der ostasiatischen Rechtsgeschichte)에 관하여는 그 동안 10여 년간 몇 군데서 영어로 발표한 논문들이 있어 준비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영어에서 독일어로는 거의 자동번역이 되어 편리한데, 그렇게 번역한 몇 개의 논문들을 하나로 압축하여 독일어를 다듬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마지막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독일 학생 베르트바인(Simon Werthwein)군이 교정을 해주었는데, 그는 중국 북경대학에 유학하여 중국법을 잘 아는 똑똑한 젊은 학자이다. 특히 중국어의 독일식 표기를 잘 바로잡아 주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30년 전의 나의 박사논문 지도교수이신 알렉산더 홀러바흐(Alexander Hollerbach) 교수도 한번 원고를 읽어봐 주시겠다고 해서 무척 감사했다. 이렇게 거의 완전하게 논문을 준비하고 나니 안심은 되었지만 분량이 32페이지나 되어 한 시간 안에 읽기에

는 너무 길었다. 그래서 강연할 때 생략할 부분을 연필로 표시해서 틈틈이 읽고 읽는 연습을 했다.

II .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의 강의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교수들이랑 사귄 분들과 작별인사를 할 겸 그 곳 6개월 체류동안 그린 그림 전시회(Ausstellung)를 대학박물관(Uniseum)에서 9월 1일~5일 가졌다. 대학과 동창회의 성원 속에서 성황을 이루는 큰 행사가 되었는데(자세히는 *Badische Zeitung*, 4. September, 2008 기사), 마음 속으로는 곧 바로 이어질 독일 법사학 대회에서의 강연 때문에 조바심이 되었다.

9월 7일 아침 프라이부르크역에서 기차를 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갈아타고 뷔르츠부르크를 지나 파싸우역에 내리니 오후 4시쯤 되었다. 이곳에서는 뭇헨이 가깝고, 곧바로 오스트리아로 들어가는 국경이라 꽤 긴 여행을 한 것이다. 들던 대로 도나우(Donau)강과 인(Inn)강이 만나는 수려한 풍광의 물의 도시이다. 도나우강변의 한 고풍스런 호텔에 예약을 해주어서 곧 바로 여장을 풀었다.

5시 15분부터 파싸우대학 대강당에서 개회식이 있어 곧장 나갔다. 약간 가랑비가 오는 인강의 강변을 따라 걸어 올라가니 들던 대로 경관이 무척 아름다웠다. 이미 많은 참석자들이 와서 샴페인을 한잔씩 들면서 등록을 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었다. 400여 명이 등록했다는데, 독일 법사학자들만이 아니고 사실상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한 두 명씩은 오고, 일본에서도 10여 명, 중국에서도 10명 가량, 한국에서는 반갑게도 서울 법대의 동료 최병조 교수가 왔다. 개회식은 총장, 법대 학장 등의 대학 소개를 겸한 인사말로 끝내고, 6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기념강연이 시작되었다. 초청연사는 뷔르츠부르크대학의 핫소 호프만(Hasso Hofmann) 교수, 제목은 “유럽에는 솔로몬들이 없다: 법과 문화의 관계(In Europa kann es keine Salomons geben – Über das Verhältnis von Recht und Kultur)”였는데,

법을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한 라드브루흐(G. Radbruch) 등 독일의 법사상사 내지 법학사를 조리있게 조명하는 내용이었다. 명성으로만 듣던 대가다운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어서 대학 식당에 융숭하게 준비된 만찬이 슈바이처(Walter Schweitzer) 총장의 건배사로 시작되었다. 만찬에 교수 부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여러 얘기를 나눴고, 호프만 교수에게도 하이델베르크대학 동창 친구인 홀러바흐 교수의 각별한 안부를 전했더니 놀라면서 반가워했다.

로비에는 항상 참가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환담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법사학 관계 출판물이 전시되어 구입이나 문의를 할 수 있었다. 눈에 띄이는 것은 법사학에 관한 많은 책을 낸 쾰른의 빌라우(Böhlau) 출판사가 출판물들과 함께 특별 카탈로그를 만들어 온 것이었고, 비인의 만츠(Manz) 출판사에서 거기서 발간하는 <근대법사잡지>(Zeitschrift für Neuere Rechtsgeschichte)의 30주년 문헌목록집을 만들어 와서 배부해주는 것이었다(아래 표지 사진 참조). 얼핏 훑어보니 세계에 서양어로 된 법사학 관계 잡지 41종의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우리 <법사학연구>는 어떤 자리에 서있을까?).

다음날 8일은 아침 9시부터 기조강연(Plenum)이 오전에 둘, 오후에 둘 있었고, 2시 15분부터 분과별 발표에 들어갔다. 오전 첫 강연은 프랑크푸르트대학의 슈틀라이스(Michael Stolleis) 교수의 사회로 할레대학의 릭(Heiner Lück) 교수가 “동구에서의 독일법(Deutsches Recht im Osten – Strukturen, Kontexte und Wirkungen eines sensiblen Forschungsthemas)”에 대해 했다. 상당히 많은 질문과 논평이 나오는 것을 보고 나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긴장되고 떨렸다. 다음은 비인대학의 브라우네더(Wilhelm Brauner) 교수의 사회로 오스트리아 그라츠대학의 베제너(Gunter Wesener) 교수가 “17, 18세기의 입법, 편찬, 개혁계획과 란트법초안(Kodifikationen und Kompilation, Reformprogramme und Landrechtsentwürfe des 17. und 18. Jahrhunderts)”을 강연했다.

점심을 먹고는 2시 15분부터 교회법사(Kanonistik), 헌법사(Verfassungsgeschichte), 동아시아(Ostasien) 부분의 3분과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제1분과에서는 뮌헨대학의 짐스(Harald Siems) 교수의 사회로 암스텔르담대학의 돈도르프

(Harry Dondorf) 교수의 “학식법의 이행강제론에 미친 교회법학의 영향”(Einfluss der Kanonistik auf die Lehre des Erfüllungszwangs im gelehrten Recht)과 뮌헨대학의 란다우(Peter Landau) 교수의 “12세기의 쾰른 교회법학”(Die Kölner Kanonistik im 12. Jahrhundert)을 들었다. 3시 15분에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는 다시 할레 대학의 슈툼프(Christtoph Stumpf) 교수의 “교회와 헌법”(Kirche und Verfassung), 니메겐(Nijmegen)대학의 코펜스(Chris Coppens) 교수의 “교회법에서의 절차보장”(Prozessgarantien im kanonischen Recht)이 발표하였다.

제2분과에서는 예나대학의 링겔바흐(Gerhard Lingelbach) 교수의 사회로, 에어랑겐대학의 노이하우스(Helmut Neuhaus) 교수의 “근세 초기의 정치문화”(Die politische Kultur in der frühen Neuzeit), 만하임대학의 팔로프(Louis Pahlow) 교수의 “19세기 전반의 독일 국가법에서의 경제와 국가”(Wirtschaft und Staat im deutschen Staatsrecht der ersten Hälfte des 19. Jahrhunderts)가 발표되었다. 커피 브레이크 후 이어서 뮌스터대학의 슈톨베르그-릴링거(Barbara Stollberg-Rilinger) 교수의 “문화사로서의 헌법사”(Verfassungsgeschichte als Kulturgeschichte), 란다우 대학의 키르쉬(Martin Kirsch) 교수의 “19세기 유럽 헌법논의”(Die europäische Verfassungsdiskussion des 19. Jahrhunderts)가 발표되었다.

나는 제3분과인 동아시아법사에 참석하였다. 도쿄대학의 헨네(Thomas Henne) 교수의 사회로 맨먼저 서울대의 최 병조(Byoung Jo Choe) 교수의 “한국에서의 법률가양성: 중부유럽 법학의 영향과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Die Juristenausbildung in Korea: Der Einfluss der mitteleuropäischen Rechtswissenschaft und der Paradigmenwechsel in der neuesten Zeit)가 발표되었다. 최 교수는 한국 법학이 로마-독일 법학에 기초했음을 강조하면서 최근의 로스쿨에로의 전환을 소개하였다. 시사적인 관심이 큰 때문에 여러 질문들이 나왔다. 최 교수는 잘 답변해주면서 끝을 맺어 마치고 축하해주었다. 이어서 베를린대학의 라우(Ulrich Lau) 교수의 “진시대 상서부의 형사절차”(Die Überprüfung von Strafverfahren unterer Instanzen durch die oberste Justizbehörde der Qin-Dynastie)가 발표되었다. 독일 법사학자가 중국법사의 실증적 연구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커피 브레이크를 갖고 북경대학에

서 온 미 지안(Jian Mi) 교수가 “중국에서의 독일법의 수용”(Die Rezeption des deutschen Rechts in China nach der Reform und der Öffnung nach aussen im letzten Jahrhundert)을 발표하였다. 독일어도 잘 했고, 중국이 현재 서양법을 열심히 수용하여 법근대화를 이루려는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니가타대학의 마츠모토 에미(Emi Matsumoto) 교수가 “일본에서의 독일법의 수용”(Rezeption des deutschen Rechts in Japan)을 발표하였다. 일본에서의 독일법의 수용에 관하여는 독일 학자들도 많이 알고 있었고, 내용도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았다. 이렇게 첫날의 일정이 끝났다.

Ⅲ.

9월 9일, 드디어 내 발표의 날이 왔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9시까지 대강당으로 갔다. 오전에 프라이부르크대학의 볼프(Joseph Georg Wolf) 교수와 나의 주제 강연이 있기 때문에, 볼프 교수에게 “오늘은 프라이부르크 날이군요”라고 인사하면서 서로 웃었다. 그는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도 은퇴를 했기 때문에 보기가 쉽지 않은데 함께 법사학대회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이 반갑고 뜻깊게 느껴졌다. 사실 로마법사학자인 그도 나를 잘 모르다 이번에 가까워진 느낌이다.

10시 45분부터 시작된 내 강연은 괴팅겐대학의 베렌츠(Okko Behrends) 교수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그는 최병조 교수의 지도교수이기도 하고, 최 교수의 초청으로 2005년 10월에 서울 법대 법학연구소에 초청되어 ‘전통로마법의 비밀’(Das Geheimnis des klassischen römischen Rechts)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기도 하여 구면이라 다시 반갑게 만났다(그의 강연은 Byoung Jo Cho ed., *Law, Peace and Justice: A Historical Survey*, 경인문화사, 2007 수록). 그래서 그는 나를 매우 자세히 친절히 청중들에게 소개하였다. 나는 속으로 침착을 다짐하면서 몇 번 연습한 원고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서양의 법사학자라면 ‘보통법’(ius commune)이 무엇이고, 그것이 법제사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유럽법의 통일화 작업에서

새롭게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강연에 집중이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의도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나에게 ‘보통법’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두 독일 법사학자 헬무트 코잉(Helmut Coing) 교수와 한스 티이메(Hans Thieme) 교수에게 바친다고 하면서 그들과의 생전의 에피소드를 간략히 두 가지 얘기했다. 순간 청중의 눈치를 살펴보니 모두 웃음 띤 표정으로 재미있게 듣고 있는 것 같다(코잉과 티이메에 관하여는 뒤에 후술). 그 순간 “성공이다”라는 안도감이 느껴져, 나는 좀 더 빨리 말하면서 군데군데 자유설명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한 시간 안에 다 못 읽는 것보다 대충 전체를 커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양인은 서양인과 다른 법관념을 갖고 있다는 대목에서 미리 준비해간 法자와 그 고자(古字)를 내가 붓으로 써 온 것을 보여주며 자유롭게 설명을 했더니, 베렌츠 교수가 그것을 달라고 해서 앞의 벽면에다 붙이는 것 아닌가. 아마도 法자가 전 유럽 법사가들 앞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소개되기는 사상 처음일 것이다. 모두 빨려오는 듯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마음을 놓고 나머지 원고를 요리할 수 있게 되었고, 손목시계로 정확히 한 시간이 되는 것을 보며 마쳤다. 이어서 몇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서양학자들이라 동아시아법사에 대해 잘 몰라서이기도 하겠지만 좀 더 알고자하는 질문이지 논쟁적인 질문은 없었다. 특히 고맙고 인상적인 것은 일본 오사카시립대학에서 온 원로 법사학자 이시베 마사스케(石部雅亮) 교수가 일어서서 내 발표를 칭찬해주면서, 내가 제시한 테제 하나하나가 동아시아 법사학자들이 모두 연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서 내 뜻을 전폭 지원해주었다. 성함은 들었지만 처음 만나는 학자인데 독일어도 잘 하고 정말 고맙웠다. 마치고 나니 베렌츠 교수가 동아시아법사가 보통법의 성립에서 시작하여 몰락으로 슬픈 역사로 전개된 것이 애석하게 느껴진다고 논평을 하면서 끝맺음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었다. 최병조 교수도 나에게 잘했다고 해서 정말 그랬나보다 싶어 안도가 되었다. 함께 나가 인(Inn)강을 바라보며 점심을 나누며 땀을 식혔다.

오후에는 다시 로마법, 최고재판(Hochstgerichtsbarkeit), 동유럽의 3분과로 나

누어 진행되었다. 로마법 분과에서는 프라이부르크대학의 새 로마법학자 볼프강 카이저(Wolfgang Kaiser) 교수의 사회로 자르브뤼켄대학의 브란즈마(Freerk Brandsma) 교수, 자르브뤼켄대학의 바부시오(Ulrike Babusiaux) 박사가 발표하고, 휴식 후 다시 레겐스부르크대학의 크로펜베르크(Inge Kroppenberg) 교수, 튀빙겐대학의 핑겐하우어(Thomas Finkenauer) 교수가 발표하였다. 로마법 전공학자들도 이렇게 많구나 싶었다.

제2분과에서는 비인대학의 지몬(Thomas Simon) 교수의 사회로 레겐스부르크대학의 베커(Hans-Jürgen Becker) 교수, 뷔르츠부르크대학의 체군(Ignatio Czeguhn) 교수가 발표하였다. 베커 교수는 내가 프라이부르크에서 공부할 때 요셉 카이저(Joseph Kaiser) 교수의 조수로 있었던 학자인데, 이번 대회에서는 만나지도 못하고 말았다. 휴식 후 프라이부르크대학의 독일법사 교수 카노프스키(Bernd Kannowski) 교수가 “작센슈피겔에서의 최고재판”(Höchste Gerichtsbarkeit nach dem Sachsenspiegel), 로마대학의 알바치 델 프라테(Paolo Alvazzi del Frate) 교수의 발표하였다.

제3분과에서는 파싸우대학의 분쉬(Thomas Wunsch) 교수의 사회로, 트르나바(Trnava)대학의 블라호(Peter Blaho) 교수, 타르투(Tartu)대학의 루츠-수탁(Marju Luts-Sootak)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반시간 휴식 후 토룬(Torun)대학의 차자(Roman Czaja) 교수, 브로클라브(Wroclaw)대학의 프탁(Marian Ptak) 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5시 30분부터 대강당에 다시 모여 <사미니 법사학잡지>(ZRG) 발간 125주년 기념 축하강연과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강연은 프랑크푸르트대학의 뤼케르트(Joachim Rückert) 교수가 행하였다. 이 행사를 보니 독일에서 법사학 연구가 거대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실감이 났다. <사미니 법사학잡지>(Zeitschrift der Savigny-Stiftung für Rechtsgeschichte)는 1815년에 사미니(Friedrich Carl von Savigny)와 아이히호른(Karl Friedrich Eichhorn)에 의해 창립되어 1881년에 창간호가 나와 지금까지 128년이 되도록 발간되어오고 있다. 1880년부터 게르만법사부(Germanistische Abteilung)와 로마법사부(Romanistische Abteilung)가 분리되었고, 1911년부터 교회법사부(Kanonistische Abteilung)가 독립되었다. 25년마다 색인집

이 간행되고 있다.

IV.

저녁 7시 반에 모든 참가자들은 파싸우 시장의 초청으로 시청 홀에 초대되었다. 도나우강이 독일을 마지막 떠나는 맨 끝자락이고 바로 오스트리아 동유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쩐지 약간 이국적이기도 한 분위기의 이 도시가 옛날부터 풍부한 전통이 있었음을 휘황찬란한 실내장식으로 알 수 있었다. 만테 교수의 준비성 있는 계획으로 파싸우 전통의상을 입은 여성들이 나와서 전통 춤을 추고 맥주를 권하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내 강연의 축하를 다시 받았다. 호프만 교수가 나에게 내 강연은 마음(Herz)으로 한 강연이기 때문에 공감이가 컸다고 칭찬했다. 슈틀라이스 교수는 내가 코잉 교수와 티이메 교수에 대해 각별히 언급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내 뜻이 이들에게 전해졌구나 싶었다. 만테 교수도 이번 대회에서 내 강연이 하이라이트였다고 해서, 나도 기분이 좋다고 답하며 좋은 기회를 베풀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프랑크푸르트의 막스 플랑크 유럽법사연구소의 연구원인 밀로스 베취(Milos Vec) 박사가 나중에 언론에 보도 담당이라면서 내 法자의 서예를 복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내어주었다. 이렇게 그동안 2년 동안 준비한 내 주제 강연 발표가 독일 법사학계에서의 첫 데뷔이면서 어찌면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독일 법사학대회 자체로서도 동아시아법사를 한 주제로 계속 다루어 줄지 의문이다. 만테 교수는 로마법 학자임에도 중국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관심이 있어 이번에만 가능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서양법사학과 동양법사학을 한 자리에서 어떻게 국제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숙고해 보아야할 숙제이다.

나는 모든 일정이 끝나고 일부러 세 줄기의 강물이 만나는 지점에 산책을 나가 술기운도 껄 겹 밤바람을 한껏 들이켰다. 실은 그 사이 이 곳에 와서 그림을

한 장 그렸다. 세 줄기의 강물이 만난다고 하지만 육안으로는 도나우와 인 두 강이 만나는 것만 보였다. 아무튼 이런 특별한 지점에서 홀로 시간을 가지며 학자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게 느껴졌다. 마치 베니스를 연상시키는 물의 도시인 이 곳이 유럽에서 홍수가 나면 범람하는 수위를 재는 가장 민감한 곳임도 알았다. 역사상 언제 얼마나 홍수가 나서 물이 어디까지 찼는지 성당 벽 위에 눈금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인상적이면서도 여기도 천국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10일은 마지막 발표일이었지만 나는 귀국을 서둘러야 했기 때문에 미리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한국에는 9월 1일부터 새 학기라고 양해를 구하였다. 마지막 날에는 주제 강연 둘과 비잔틴과 로마, 영국과 스칸디나비아의 법사에 관한 8개의 분과발표가 있었다. 대회 도중에 나오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내 갈 길이 멀고 바빴다.

귀국해 얼마 지나 나는 홀러바흐 교수로부터 편지와 함께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신문 스크랩을 받았다. 나의 왕년의 지도교수께서 신문에 난 내 기사를 보고 스크랩해서 보내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밀로스 베취 박사가 쓴 기사로 이번 법사학대회를 전체적으로 종합보도하는 내용이었는데, 놀랍게도 전체의 3분의 1 분량을 나의 강연에 대해 할애하고 있었다. 기록을 위해 여기에 그 부분을 옮겨본다.

Der Seuler Rechtslehrer Chongko Choi sprach über Aufbau und Verfall des Ius Commune in der ostasiatischen Rechtsgeschichte. Methodisch und inhaltlich bestens deschult an der europäischen Rechtsentwicklung, verfolgte er die Ausbreitung gemeinsamer Normen und Institutionen in China, Korea und Japan. Statt der oftmals überakzentuierten Erzählungen nationaler Besonderheiten, so Chois Plädoyer, solle man das Gemeinsame sehen, auch im Hinblick auf dort sehr gegenwärtige rechtliche Aufgaben. Immerhin gelte es, wie in Europa, einen Wirtschaftsraum transnational aufzubauen. Ist diese Erzählweise nicht zu eurozentrisch, fragte da das kritische Publikum und verwies auf die autonome Tradition des Kulturraums samt allen strukturellen Unterschieden in seiner

Rechts- und Wissenschaftsentwicklung. Auf grösste Interesse stiessen hingegen Chois profunde Erläuterungen zu den wenig bekannten Aspekten der chinesischen Rechtsgeschichte, die er dem Publikum, mit eigenen Kalligraphien unterlegt, charmant nahebrachte. Das Andere der chinesischen Rechtskultur manifestierte sich dabei gerade in ihren unübersetzbaren Begriffen. Das “Li”, hervorgegangen aus dem Schriftzeichen für das mystische Einhorn, benennt jene Form von Normativität, die zwischen Recht und Moral steht. Als Bezeichnung für das erwünschte Verhalten von Individuen wurde “Li” dann später auch auf die zwischenstaatlichen Diplomatie und Seehandel dort genau reguliert wurden, gerade weil es kein Völkerecht im europäischen Sinne gab, weiss die ostasiatische Rechtsgeschichte noch nicht. (Milos Vec, Wie die Alten sangen, Neue Begriffe dringend gesucht : Die Verjungung der Disziplin fiel beim siebenund dreissigsten Deutschen Rechtshistorikertag in Passau aus,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8. Sept. 2008)

읽어보니 해태(麋)를 法자와 연결시키지 않고 禮자와 연결시키는 등 이해를 잘 못한 점도 있긴 하지만 비교적 인상적으로 잘 썼다고 느껴진다. 아무튼 독일 최대의 일간지에서 이 정도로 다루어주니 놀랍고 고맙다.

V.

이 자리를 빌어 위에서 언급한 코잉 교수와 티이메 교수에 대해 좀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내가 강연에서 언급한 에피소드의 배경은 이렇다.

내가 헬무트 코잉(Hemut Coing, 1912~2000)의 책 <독일법제사>(Epochen der Deutschen Rechtsgeschichte)를 정종휴 교수와 함께 번역하여 출간한 인연으로 알게되어 그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안내를 하는 영광을 가졌다. 그 때가 1982년 4월 12~15일이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초청하여 강연을 하고 하루만 관광안내를 나에게 부탁해왔다. 서울대 관악캠퍼스에는 철쭉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있었다. 코잉교수는 감탄하면서 정년 후에 여기 와서 살고 싶다고 했다. 농담이 아닌

것 같이 느껴졌다. 경주까지 가기는 그렇고 용인 민속촌을 모시고 갈까 생각하고 있는데, 남한산성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다. 알고 보니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 동경대학의 법사학자 구보 마사하다(久保正藩)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남한산성이 한중관계에서 중요한 장소임을 알고 온 것이었다. 물론 한국인에게는 아픈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부부는 코잉 교수 내외를 모시고 남한산성에 다녀왔다. 그 때 내가 찍은 교수의 사진이 <한국법사학회요람>(2001)에 실려 있다. 한국의 전통 성벽에 소나무숲을 배경으로 편안히 서있는 독일 법사학의 대가의 모습은 지금 보아도 매우 인상적이다.

그는 프랑크푸르트 법대 학장, 총장을 역임하고, 막스 플랑크 유럽법사연구소의 소장으로서 독일법사학자는 물론 법철학자로서도 명성을 떨친 거목이다. 그가 유럽법사연구소에서 낸 학술지 이름이 바로 <보통법>(Lus Commune) 인 것은 서양법사학을 하는 학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니 내가 이런 학문적인 내용과 개인적 인연으로 그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은 당연하였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었다. 나는 왜 한국인에게 아픈 장소로 가져다 했는지 그 때는 이해가 잘 안됐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는 동아시아법사를 전체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내 소감을 피력한 것이다. 내가 말하는 동아시아 보통법의 사상과 일치되기 때문이었다.

세월이 지나니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듯. 코잉 교수도 2000년 8월 15일에 작고하고, 막스 플랑크 유럽법사연구소의 저널도 이름이 바뀌어 <법사학잡지>(Rechtshistorisches Journal)로 바뀌어 나오고 있다. 재작년(2007)에 그곳에 들렀을 때 새삼 그가 그리워지는 것을 느꼈다. 다행히 이 연구소에서 4개월 이상 연구한 학문적 성과를 심사해 <헬무트 코잉 상>(Helmut-Coing-Preis)을 시상한다고 한다.

파싸우 대회에서 내가 그를 언급한 것을 슈톨라이스 소장이 인상적으로 보고 내 강연을 <법사학잡지>에 실고 싶다고 추후에 연락이 왔다. 나로서는 망외의 영광이다. 원고를 보내놓았는데, 아직 나오지는 아니하였다.

이번 여름(2009. 7.12)에 다시 프랑크푸르트를 들렀는데 슈톨라이스 교수는 휴가 중이라 못 만나고 법대의 울프리트 노이만(Ulfried Neumann) 학장과 만찬을 나누었다. 그 사이 프랑크푸르트대학 법대가 새 캠퍼스로 이사를 가서 새 법대 건물을 처음 돌아보았다. 노이만 학장은 자기의 집무실인 학장실로 안내하면서 벽에 걸린 총장 가운(Talar)과 모자를 가리키며 코잉의 것이라 했다. 나는 코잉 교수를 만나듯 반가워 그 옆에 서서 사진을 하나 찍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려주니 노이만 학장도 대단히 기뻐하였다. 2년 후(2011)에 이곳에서 세계법철학대회(IVR)가 열리는데, 물론 그 때도 참석하여 발표를 할 예정이고 사석에서도 코잉과의 추억을 말하고 싶다.

한스 티이메(Hans Thieme, 1906~2000) 교수와의 인연은 더 거슬러 올라간다. 내가 1975년말 프라이부르크로 유학을 가서 셋방을 구한 것이 귄터스탈(Günterstal)이라는 아담한 마을이었다. 거기는 교수들이 많이 산다고 하고, 예전에 철학자 에드문드 훗설(Edmund Husserl)과 그의 아들 법학자 게르하르트 훗설(Gerhart Husserl), 로마법학자 프링스하임(Fritz Pringsheim), 형법학자 쉹케(Adolf Schönke), 경제학자 오이켄(Walter Eucken) 등이 묻혀있는 성당묘지가 있다. 티이메 교수는 일일이 무덤을 가리키며 프라이부르크대학 학자들의 생애를 설명해 주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한국에서의 법철학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법사학에로 근접해간 것은 티이메 교수의 학문적 매력 때문이다. 그의 서재에 초대되어 가보니 법사학 속에 법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고, 나아가 미술, 문학 등 문화의 영역까지 포괄되고 있었다. 여기서부터 나는 프라이부르크대학의 박사과정 중 내 법철학연구소 바로 건너편 법사학연구소를 수시로 들락거렸고, 티이메 교수의 후임인 크뢰셀(Karl Kroeschell) 교수의 강의와 세미나를 열심히 들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하면 이런 ‘짬뽕’이 나의 법사상사학이라는 완충물을 만든 것이다. 그것은 다분히 프라이부르크적인 타입이라 할만하다. 티이메 교수 자신이 일찍부터 동료인 법철학자 에릭 볼프(Erik Wolf) 교수와 한 때 같은 집에 살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이다. 티이메의 법사학에는 보통법이니 자연법이니 하는 단순한 제도사가 아닌 관심이 드러나는 것이 다 그런 배경 때문이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때 프라이부르크대학 총장까지 역임한 티이메 교수는 일본 법사 학계와 각별한 교류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연세대의 박원선(朴元善) 교수가 객주(客主)와 보부상(裸負商) 연구를 독일어로 출간하려고 티이메 교수와 문통하고 있었다. 티이메 교수는 <사비니 법사학지>의 독일법사 분야의 편집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동아시아 법사에 관한 논문을 실을 수는 없는 처지라 대단히 미안하다면서 거절하였다. 나는 이 과정을 티이메 교수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고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웃인 티이메 교수 댁에는 지하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본 법학자들이 거의 끊임없이 살고 있었다. 동경대학의 헌법학자 고바야시 나오끼(小林直樹) 교수도 거기서 처음 알게 되었고, 홋카이도 오대학의 법제사가 이시가와(石川 武) 교수도 그 때부터 티이메 교수의 장서를 홋카이도 오 대학으로 가져가려고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대비해서인지 티이메 교수는 개인장서를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날더러 도움을 청했다. 나도 장서를 공부하는 좋은 기회인지라 마음은 착잡했지만 도와드렸다. 후에 1990년대에 들어서 처음 일본의 홋카이도 오에 가서 홋카이도 오 대학을 방문했더니 도서관에 <한스 티이메 文庫>라 하여 내가 프라이부르크에서 본 책들이 고스란히 거기 있어 반갑고 부럽기도 하고 기분이 스잔하기도 하였다. 인생은 가도 학문은 남는다고 할까, 아니면 학문이 어찌니 해도 역사와 함께 변하고 마는 것이라 할까? 주관적 감상은 자유이지만, 현실적으로 분명한 것은 일본 학계는 예전부터 유럽의 대학자의 장서를 문부성의 지원을 받아 몽땅 한 대학도서관에 사 넣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젊은 학자들의 반대도 있었다 하는데, 긴 안목으로 보면 이것이 학문의 세계에서든 국력의 힘이요 승리라 할 것이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독일법제사대계(Handwörterbuch zur Deutschen Rechtsgeschichte, HRG)>에 보면 '보통법(gemeines Recht, *Ius Commune*)'의 항목이 티이메 교수에 의해 집필되어 있다. 나는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 항목을 읽고 다시 티이메 교수를 회상하고 그의 학문을 생각하였다. 참고로 이 대계사전은 독일 에리히 슈미트

(Erich Schmidt) 출판사에서 2004년부터 나오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8회분이 나왔고, 2009년 중에 9, 10회분이 나올 예정인데, 아직 알파벳순으로 H줄에 서있으니 한참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완간될 것이다. 이런 대작업이 꾸준히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학문선진국의 표상이며, 그것이 부럽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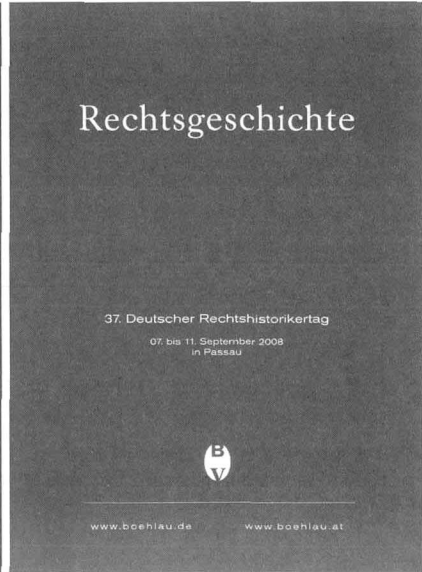
인간은 유한하여 이런 이웃 교수 티이메도 2000년 10월 3일에 작고하였다. 그러고 보면 코잉 교수가 2000년 8월 15일에 작고하고 한달 반 만에 티이메 교수가 작고한 것이다. 코잉은 88세를 사셨고, 6년 선배인 티이메는 94세를 사셨다. 티이메는 생전에 친히 나를 안내하던 그 성당묘지의 중앙에 묻혔다. 좀 극성스럽지만 인정스럽던 부인도 먼저 작고해 함께 묻혀있다. 나는 옆의 벤취에 앉아 내외분과의 즐겁던 지난날을 회상하였다.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는 여전히 검푸르게 싱싱하게 서있는데, 인간은 100년을 못살고 다 흙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니 처연한 느낌이 엄습한다. 천천히 걸어서 레하크로(Rehhagweg) 19번지 그 댁에까지 가보았다. 아무 인기척도 없는 집에 지금은 누가 사는지? 노크해 보려다 돌아섰다. 후에 알아보니 티이메에 대한 추모사(Nachruf)는 쉐리히대학의 쇼트(Clausdieter Schott)가 <법률신문>(Juristenzeitung, 2001, S.346-347)에, 하이델베르크대학의 라우프스(Adolf Laufs) 교수가 <사비니 법사학지>(ZRG, Germ. Abt. Bd.119, 2002)에 실었다. 이 두 원로 법사학자는 이번 법사학자 대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나와 교분이 깊은 학자들이라 추모사를 남다른 감회를 느끼며 정독하였다.

인간이 유한한 것이야 새삼 말할 필요도 없지만, 학문의 발전이란 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작년에 프랑크푸르트의 막스 플랑크 유럽법사연구소에 들렀을 때 동아시아에서 어떤 학자가 와서 연구하고 있느냐고 물으니 일본 학자 한 사람, 중국학자 세 사람이 와 있다고 했다. 한국인은 한 사람도 없다면서 나더러 올 생각이 없느냐고 했다. 나는 얼떨결에 “나이가 많아...”하고 얼버무렸는데, 안내자가 “당신은 아직 젊어 보인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상당히 놀랐다. 벌써 내가 나이 탓을 하며 조로(早老)한 체 하는가! 이런 의미에서 이번 파싸우 독일 법사학자 대회는 나에게 연구결과의 발표기회이면서 다시금 큰

자극을 받는 좋은 기회였다.



〈근대법사 잡지(ZNR) 30주년 기념 목차색인호〉



〈법사학자 대회를 위해 특별히 만든
법사학 문헌목록집〉